

Japan Weekly Digest

2011. 7. 30. ~ 8. 5.

☐ 금주의 이슈

- 일본정부, 엔高 개입
- 히타치제작소-미쓰비시중공업 경영통합

☐ 일본기업전략

- 파나소닉, 아시아에서 에너지절약도시 개발
- 한/일 에너지기업 울산에 합장공장

☐ 경제산업성동향

- 「동일본 대지진 이후 산업실태 긴급조사 2」 결과 발표
- 일본-인도간 「포괄적 경제연휴협정」 발효

☐ 보고서 리뷰

- 제조업의 공동화리스크를 어떻게 보는가?



협회 한일경제협회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 자료제공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kje.or.kr>)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사오며,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02-3014-9888)

□ 금주의 이슈

○ IMF, 올해 일본성장률 $\Delta 0.7\%$ 하향 조정

- 국제통화기금(IMF)은 8일 일본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0.7%로 하향 조정했다고 발표
- IMF는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여파가 계속되면서 일본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발표했던 1.4%에서 마이너스 0.7%로 하향조정했다고 발표
- 그러나 내년전망은 당초 발표했던 2.1%에서 2.9%로 상향하면서 "일본 경제는 지진피해 때문에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급압박이 완화되고 피해복구 지출에 속도가 붙으면서 여름부터 회복세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
 - * 일본의 4월 경상흑자도 전년대비 70% 급감
- 또 막대한 복구비 지출을 고려하면, 일본정부가 내년부터 소비세를 7~8%로 인상하고 15%까지 지속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

○ 일본 차기총리로 노다 재무상 유력

- 간 총리 후임으로 노다 재무상을 중심으로 대표선임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일본 언론에서 보도
- 일본 언론에 의하면 민주당 오카다 간사장, 센고쿠 대표대행, 아즈미 국회대책위원장, 에다노 관방장관 등이 차기총리로 노다 재무상을 밀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함
- 노다 재무상을 후임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Δ 오자와그룹도 인정하고 있는 인물 인데다가 Δ 현안인 2차 추경예산안 통과 등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함
 - * 민주당 간부들은 7월에 차기총리 선거를 실시하기로 합의

○ 도요타 CEO, 한국시장 파악을 위해 처음으로 방한

- 도요타자동차 아키오사장이 4일, 한국시장 파악과 직원 격려차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
- 방한목적은 한국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영업현장을 파악하고 지진 이후 도요타 복구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함
- 아키오사장은 "지진 이후, 500사에서 주요부품 공급문제가 발생했으나, 4월에는 150사, 현재는 30사까지 줄어들었다. 6월부터는 90%까지 회복될 것"이라고 언급
- 자동차업계에서는 도요타CEO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한국자동차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라고 분석

□ 일본정부, 엔高 개입

- 일본정부/일본은행은 엔화환율이 달러당 76엔대에 돌입함에 따라 엔高 시정을 위한 긴급대책을 검토
 - 일본정부는 더 이상 엔高를 방치하는 경우, 지진피해로부터 겨우 회복하기 시작한 일본경제가 악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엔화매도/달러화매입 준비를 서두르고 일본은행은 추가 금융완화조치를 위한 조정 작업에 착수
 - 8월 1일 미국경제에 대한 불신 고조로 뉴욕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엔화가치가 76엔 29전까지 상승(과거 최고치 : 76엔 25전)
 - 미국도 사실상 일본의 시장개입을 용인
- 일본정부는 작년 9월 과거 최대규모의 엔매도 개입을 실시, 지진발생 직전인 금년 3월에 미국/일본/유럽에 의한 협조개입을 단행한 바 있어 이번 개입으로 연간 세번째의 시장개입
- 일본정부의 개입과 함께 일본은행도 자금공급 확대에 나섬으로써 엔高 억제효과를 제고
 - 구체적으로는 국내나 사채 등을 매입하기 위한 기금규모를 현재의 40조엔에서 5조-10조엔 정도 확대하는 안이 유력시되고 있음. 국채나 국고단기증권 구입을 늘리는 외에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한 사채 등의 위험자산의 매입도 검토할 것으로 보임.
- 이번 긴급대책은 정부/일본은행이 같이 보조를 맞춘 것이 특징으로서 엔高 저지를 위한 강력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음. 다만, 일본은행 내부에는 기업마인드 악화를 지켜보자는 신중론도 있어 엔화환율 동향을 계속 주시하면서 최종적으로 판단

□ 히타치제작소-미쯔비시중공업 경영통합

- 신일철-스미토모금속간 합병에 이은 대형 경영통합

- 히타치제작소와 미쓰비시중공업이 경영통합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기본 합의, 2013년 봄에 신규 회사를 설립하여 양사의 주력부문인 사회인프라 사업 등을 통합하기로 함. 통합이 실현되는 경우, 원자력발전 플랜트에서 철도시스템, 산업기계, IT까지를 망라한 세계 최대규모의 통합인프라 기업이 탄생하게 되며, 일본에서는 도요타자동차 다음으로 매출액이 큰 규모가 될 것임.
- 기간산업인 전기와 기계분야에서 각각 최대 기업인 양사가 통합하여 글로벌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을 되찾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음.

○ 경영통합의 배경

- 이번 양사간 경영통합의 배경으로는 무엇보다도 일본 경제 전반에 걸친 경쟁저하에 대한 위기감임. 중국이나 한국과의 경쟁 격화를 비롯하여 엔高, 정국혼미 등, 현재 일본에는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
- 동일본대지진에 의한 후쿠시마제 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하여 성장분야로 자림 매김한 원자력발전 플랜트사업의 장래성이 불투명하게 되는데다, 엔高로 경쟁 환경마저 불리해진 것도 양사의 통합을 촉진시킨 요인임.

○ 경영통합의 파급효과

- 앞으로 양 사간 통합으로 어느정도 효과가 날지는 현 단계에서 미지수이나 일단 구조조정으로 인원을 줄이고 성장성 있는 사업 분야를 강화하여 국제경쟁력을 높힐 수 있음.
- 히타치와 미쓰비시에 한정되지 않고 일본기업 전체에 효과가 파급될 것으로 보고 있음. 해외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일본기업에의 기대감도 커질 것으로 보여 앞으로 이번과 같은 통합은 기계, 전기에 국한되지 않고 여타 기업이나 업종에도 확산되어 기업규모의 대소를 불문하고 기업간 경영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
- 시장에서는 지진재해 이후 부품조달난이 큰 문제로 부상되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재편에까지 파급되고, 나아가 일본의 산업경쟁력 향상에 직결되는 보다 큰 차원의 파급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음.

◆ 일본기업전략

□ 파나소닉, 아시아에서 에너지절약도시 개발

- 최근 파나소닉사는 아시아를 기점으로 아시아의 많은 도시에서 경제발전과 에너지절약을 양립시키는 새로운 신도시개발 사업을 전개, 장래 동 그룹 수익의 기둥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힘.
- 산요, 파나소닉전공과 제휴, 3사의 기술을 결집시킨 주역, 파나소닉사의 오오히라 사장과 일본경제신문사 기자와의 일문 일답

Q1 : 히타치제작소와 미쓰비시중공업의 통합구상에 관한 생각은?

A1 : 구체적이고 상세한 코멘트는 보류하고, 일단 업종을 불문하고 다이나믹한 합종연횡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며 글로벌경쟁에 직면하고 있는 기업 경영자들의 공통된 인식임.

Q2 : 파나소닉도 오오히라 체제하에서 산요 매수, 파나소닉전공의 완전자회사와 대형 M&A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A2 : 파나소닉으로서는 계속 AV(음향/영상)나 백색가전이 사업의 핵심임에는 변함이 없음. 다만 치열한 경쟁하에서 이러한 단일상품의 판매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음. 그래서 승부를 건 것이 바로 새로운 경영개념으로서의 환경사업임. 에너지 절약은 파나소닉의 고성능가전임. 에너지 창출, 에너지 축적은 산요의 태양패널이나 리튬이온전지임. 그리고 전체 메인テナンス는 파나소닉전공이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음. 이와 같은 체제는 세계적으로 우리기업뿐임.

Q3 : 싱가포르를 모델케이스로 선정한 이유는?

A3 : 이미 기본 인프라를 정비하고 있음. 이번 싱가포르 국민들의 80%가 거주하는 공단주택에 실험을 개시함. 이 실험을 토대로 중국의 텐진이나 대련, 인도에서도 에코시티 건설에 참여할 계획임. 앞으로 경제성장과 함께 아시아인들이 보다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되는 한편, 에너지공급난은 심각해질 것인바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회답임.

Q4 : 산요의 백색가전사업 매각을 단행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A4 : 산요를 매수한 이래 AV나 백색가전제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투자가나 주주들로부터의 의문이나 비판을 받았음. 본래 해야 할 사업 이외의 중복적인 사업은 배제함. 당초 시나리오가 이번에 실현된 셈임.

Q5 : 일본정부/일본은행이 드디어 외환시장에 개입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A5 : 한국의 삼성전자는 정말 엄청난 기업임을 인정함. 그러나 급격한 엔高/원高에 의해 발생하는 미국시장에서 판매가격차는 기술격차만이 아님. 민간기업은 민간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함. 그러나 최소한 경쟁조건이 정비되어야 함.

□ 한/일 에너지기업 울산에 합장공장

- 한국과 일본의 최대 에너지기업이 세계시장 공략을 위해 손을 잡음
 - SK이노베이션은 일본의 JX에너지와 모두 1조 3,5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8월 5일 발표
- SK이노베이션의 화학부문 자회사인 SK종합화학은 JX에너지와 50대 50으로 1조원을 출자 합작법인을 세우고 울산 컴플렉스에 년산 100만톤 규모의 파라기시레인(PX)공장을 3분기안에 착공할 예정
- 두 회사가 각자의 지분만큼 판매권한을 갖는 방식으로 2014년 상업생산을 시작할 예정
 - SK종합화학의 PX생산량은 연간 150만톤으로 늘어나게 됨. PX는 합성섬유의 원료인 PTA(고순도테레프탈산)를 만드는데 사용됨.
- 한국의 법인실효세율이 24%로 일본의 40%보다 낮은 점, 엔高/원低, FTA의 확충에 따른 수출거점으로서 매력 향상 등이 일본측의 합작설시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
- JX에너지는 현재 년산 262만톤의 파라기시레인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고 거의 전량을 일본에서 생산하고 있음. 앞으로 한국 합작투자기업으로부터의 수입분을 포함한 생산능력을 년 310만톤으로 하여 아시아시장 점유율을 약 15%로 끌어올려 수위의 자리를 굳힐 계획

◆ 경제산업성 동향

□ 「동일본 대지진 이후 산업실태 긴급조사 2」 결과 발표

- 경제산업성은 4월 26일 공표한 바 있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산업실태 긴급조사」에 이어 3개월 후 피해거점의 생산수준, 부품/자재의 조달상황 등에 관하여 산업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 산업 실태 긴급조사2」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
- 주요 조사결과
 - 서플라인 체인(제조업)
 - 피해거점의 생산수준
 - * 피해거점의 80%가 지진전 생산수준을 회복하거나 상회
 - 부품/부재 조달상황
 - * 97%의 제조업에서 이미 대체조달처로부터 조달을 시작
 - * 4월의 조사시점과 비교하여 대체조달처가 없다고 회답한 기업들이 감소
 - 해외거래에의 영향
 - * 제조업 전체의 30%가 지진을 계기로 해외고객으로부터 거래량 감소, 계약 파기 등을 경험
 - 설비투자
 - 4월 이후 내년도 설비투자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기업이 대세를 이룸.
 - 2010년과 비교하여 증액한 기업들이 많고 국내에서는 합리화, 성력화, 신제품, 제품고도화, 유지·보수를 위한 설비투자가 많고, 해외에서는 생산능력 증강을 위한 투자가 많음.
 - 부흥수요
 - 전업종의 50%, 제조업의 60%이상이 부흥수요에 의한 매출액 증가 예상

□ 일본-인도간 「포괄적경제연휴협정」이 8월 1일부터 발효됨.

- 이 협정은 아시아에서 세번째로 경제규모가 크고 최근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큰 인도간 무역의 자유화/원활화, 투자촉진, 관련분야의 제도 정비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
- 동 협정의 발효를 통해서 일본-인도간 경제관계 강화, 나아가 ASEAN+6에서 추진되고 있는 동아시아 광역경제연휴에 큰 추진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 이 협정은 일본으로서는 이미 발효된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아세안, 필리핀, 스위스, 베트남과의 경제연휴협정에 이어 12번째의 경제연휴협정임.

◆ 보고서 리뷰

제조업의 공동화리스크를 어떻게 보는가?

- 동일본 대지진재해로 인한 공장의 피해이나 전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기업들이 다시 해외진출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됨에 따라 일본기업들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경제산업성 조사에 의하면 제조업 관련 대기업의 70%정도가 지진재해의 영향을 받아 서플라이체인의 해외이전이 가속될 가능성이 있음.

□ 지진재해 이전 해외진출은 해외수요 확대에 대한 대응이 중심

-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한 해외시장의 확대에 따라 일본기업들의 해외진출이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일본의 해외생산비율은 이제까지 일관하여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80년대 후반 5%정도에서 2009년에는 17.2%까지 상승
- 그러나 아직까지는 대내외 거점간 생산이 명확하게 특화되어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국내 경제에 대한 영향이 한정적

□ 지진재해 이후 검토되고 있는 해외진출은 국내거점의 이전이 중심이며 국내경제에의 영향도 큰 편

- 그러나 지진재해 이후 검토되고 있는 해외진출은 이제까지와는 경향이 크게 다름.
 - 첫째, 생산거점의 분산을 목적으로 한 국내거점의 이전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 둘째, 고부가가치제품의 제조거점의 이전을 검토하는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음.

□ 일본경제의 공동화 가능성

- 일본이 비록 5중고(엔高, 높은 법인세율, 높은 임금비용, 환경제약, 교역조건 악화 등)를 안고 있지만 현장력, 고품질부재의 조달편리성, 팔리는 제품(고품질제품)을 만들 수 있는 환경 등 경쟁국들과는 차별화된 입지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 앞으로 공동화방지대책 등을 통한 공동화방지노력이 경주된다면 공동화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임.

□ 시사점

- 우리도 국내산업의 공동화방지대책을 점진, 보완하는 한편, 일본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일본기업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일본의 관련측과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